

구원 받았습니까?

신학박사 조 덕운

[에베소서 2:3-8]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 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5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7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위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여러분에게 와서, “선생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확신에 찬 어조로, “예,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구원이 내 인생의 목적이니 구원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라고 답하십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선한 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못하거나 표현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형제들에게 분명히 쓰기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 절]”고 설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구원 받았음을 확실히 알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인생의 구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만일 죽음 후의 사후 생명의 갈 곳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왜 종교를 믿어야 합니까? 단지 이생의 부귀 영화를 위해 어떤 종교를 따르다면 그 보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명제에 대한 각 종교와 종파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구원론 [salvation by grace]과 선행 구원론 [salvation by works]이 그 두가지 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위에서 사도 바울이 명백히 설파한 것처럼 은혜 구원론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왕국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함께 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원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 그 신앙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묻더라도 여러분은 “예,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 교리는 “선행 구원론”으로서, 효녀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자신의 몸을 어민들의 제물로 팔았던 경우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교리는 여러분이 제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죽기 전에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반성경적, 반 그리스도적 교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친다면, 성경을 깊이 상고하여 과연 그러한 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인지 고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강도가 바로 옆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다음과 같이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42-43]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4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험악한 죄악의 삶을 살다가 붙잡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어가고 있던 이 강도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야 이 죽어가는 몇 시간 동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주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소망을 표현했던 이 강도는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축복 가운데 이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 물질과 봉사를 수십년간 바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선 활동을 오래 한 것으로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선한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도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헌신과 선행과 사랑의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아니됩니다.

[에베소서 2:10]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의 말씀처럼 크리스찬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임을 기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의 원칙과 기준을 높힘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난 목적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온 구원을 담대히 증언하기 바랍니다. 아멘.

후원: 그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0501

Or use Paypal to send support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송금 계좌 110-008-655930 [예금주 조덕운]